

统



19

제13회 통일문예작품현상모집공고

51. 통일 1982. 6월호 <남북된 당숙이야기>



民族統一中央協議

만족봉양증암월이회

「戰場에는 전과 다투었어 出動하십시오」 — 순진한 사람, 論쟁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피신하지 않고 전장에 나갔다가 의용군으로 펼려가거나, 충산군 출발장에서 통로작전의 재판을 받고 무참히 죽어가기도 했다.

拉北戰 堂叔이야기

閻 東 根

〈民統忠南議會指導委員／忠南大教授·哲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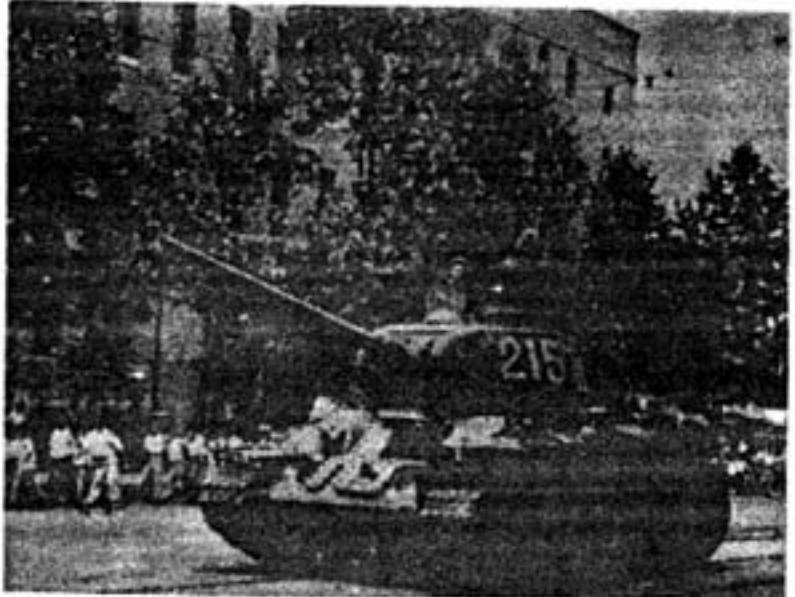
北으로 행진하던 國軍
오늘은 南으로 만
아! 쓰라리 6·25사변은 어찌 있으랴! 1950년 6월 25일 아침에 친척 한 분이 내가 학숙한 서울 누상동 고모댁에 와서 「집전장을 봐라」며 굳은 눈을 뒤졌다.

전면 공격으로 전쟁이 되겠지』고 전래
그동안 38선상에서 속수모의 국부전
이 있었지만 이제에는 38선 전역에 걸친 북괴의 공격이어서 상상치 않다고 말한다. 라디오를 듣니 국가주인 군장령은 모두 솔히 위대하고 지속방 솔직히 있다.

나는 오후 최근전에
잘 활동 전차정에 나오니
어제까지 북으로 북으로
온라가던 군인들이 오늘
온 모두 남으로 남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경계란
군인들이 트럭에 타고서
전투복에 허养을 데고,
어깨동에 위장용으로
무가지들을 끊고서 무
엇갈이 뛰어면서 지나가고 있다.

아마도 전투 중에 밀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릴 아이들 애우
여인이 지난 보따리를
풀고 남으로 남으로 전
고 있다.

그리나 그렇게 하루하
지 서둘러 피의문에 쇠
하여 짐승처럼 누가 알
았더라. 나는 27일 밤
저녁식사 후 얼마 후에
돌이니 옆 집 노인이
소리로 아들을에게 「너
쇠를 끌려 도망가라. 미



〈忠南議會議事處가 서울로 국회와 사당들을 지나고 있다.〉



거리에 나가 보니 해이지색 하복을 입은 군인들이 차지감을 전하고 있으며 키리하고 있는 것 같아. 저녁 활동 대포소리가 서울에서 들린다. 다음날 26일 근무처인 용산종합과(6개체)에 출근할 때 전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 충남장령들이 북쪽으로 차차 이동이동하고 있다. 26일에는 서울시 대포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역을 약간 변화한 모양이다. 그런데 27일에는 대포소리가 크게 들린다. 북괴의 도립기가 육군본부를 공격복표로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용산을하고 서울을 통과하여 남아가고 있다. 미군의 통영을 맡은 장교 한 사람이 우리 학교 교수실에 와서 그의 친구인 교사에게 무신지역의 전투상황을 말하는데 아주 충격한 전황을 알려 주며 저희 땅크가 공격하여 오는데 도저히 관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임자 숙제를 강화하여 학교를 지키던 이리 교사들도 당황하고 허탈감에 사이게 되었으며 전교의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장서정은 교사들에게 모두 3개월 복무를 미리 지급하여 주변에 금지한 상황을 얘기한다.

人 民 裁 判 的 处 罚 现 场

28일 아침에 증강장을 수호하면서 학도 호국단 서울회 대회에 출장한 학생들과 피군과의 충격적인 벌어지자 당시 기관총 소리가 울리고 대회장에 신봉산 농으로 증강장을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일왕산 아래 누상동에 살았는데 끝까지 증강장을 지키겠다는 서울의 대중들의 가족한 정신은 정 말 놀랄만한 것 같다. 북괴군의 거칠적인 전쟁으로 인해 불과 3일만에 서울시 울이 전령되니 미처 피난 못한 서울시민의 고통과 시련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장종을 가진 수많은 충산군이 서울의 어리 곳에 주둔하고 철리를 하며 푸석

위원장이 되었고 풀복만과 꼬통한 김성의 사진이 실린 빛보가 끌어져고 혹 은 인민체육대회 하이 거리에서 우아한 사를 축전 충설하며 또는 복합을 창업하고 남한을 비방하는 방송이 나왔다. 중산동치가 그도록 신속하고 조직적 이미 악랄한 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25 칠중에서 9·28 서울수복 까지 6개월간 중산동치에서 중산동치를 몸소 경험한 사람은 중산동치가 해 위에 가득 차고 비인도적이며 악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마지막
소식

中華書局影印

모두 풍물이라니라”고 웃으면서 그곳의 상황을 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어쨌든戰爭은 끝나야

나는 그들이 저마다 고종학과의
책과 이들의 수제하고 떠나 았다. 짐짓
간통하니 주관과 재판을 치렀지.
하니, 그가 선수에게 올라. 미술을 향해
놓았더니 선생이 풍자하고 암기하자 이
걸로도 놀라구고 허리에 허리를 치자
그 걸로는 알았던지 몇몇 책이 있었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예술이나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창작하거나 분석하는 모습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드러낸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그들이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도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그봉자 대학원 박지탁이 되었고 그봉이 도피하고 체포이나 주위에 운신할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도 신작진 나락이나 마루 밑에 구멍이 뚫려고 숨었지만 땅면하고 아쉬어 했단다.

그런데 要觀察人으로서 공산당의 감시와 조사를 받아오던 중 차수하면서 모든 것을 들통에 들키고 물려보내겠다는 공산당원들의 장면이 설에 속아서 격죽 자수하였다.

정기로 파주군수와 화성(수원)군수를 행정하고 1950년 5·10선거에 화성군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여 6천 5백표를 얻어당 7천 5백표를 얻어 당선자에게 차점으로 고지를 당시고 신예서 위원장 그봉이 고관도 아인 사무관(당시)급의 금수를 지녔는 데 살피 공산당이 죽어가나 남자 하며 잘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두 세 번 차수자의 청탁소(송종동...)에 가서 면회를 한 민족보국도 크게 치명하지 않았으리 [그곳에 모인 차수자

「죽는한 행진곡인 달啄부고(鴟啄虎歌)!—
많은 주인을 저에게 남기시고 출렁히
북으로 남치당하신 아저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북괴의 죄사들이 엄마
나 자란하고 전고하기에 그토록 남으로
오시지 못하십니까. 물어가셨다면 조국
의 수호신이 되셔서 북쪽의 불은 이리
물 뜯아내 주시옵소서.

당신이 며나신 후 고생을 하는 가족
들을 둘보아 한 화성군청의 행부하 후보
夏과장의 고마운 뜻도 알고 계시는지
요. 물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
을 부처이나 둘것하다가 2년 전에 하
늘나라에 가셨으니 가정 행진을 다 끝
으셨지요.

당신의 아들을은 모두 대학을 마치고
현재는 장가를고 손자 4명, 손녀 3명
과 함께 단란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
는 가족들, 아들·며느리·손자·손녀
들을 언제나 끌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들
은 자랑스러운 대학의 아들 같로서 다시
는 좋은 이길행복 되길 당하지 않을
것이다.」